



#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 신사고 (新思考)

노영한  
(본회전무이사)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신사고는 소련은 물론 동구라파를 변화시키고 미국과 아세아를 변화시켜 전후 냉전체제를 바꾸어 놓았다. 중동지역도, 소련거주 유대인들이 대거 이스라엘로 이주하고 지금까지 아랍측과 우호적이던 동구의 독재자들이 쓰러지고, 새로운 집권층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로 변하는 등 사람의 생각여하에(新思考) 따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지도자의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정치지도자들이 신사고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정국도 크게 변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사고의 바람은 축산업계에도 불어와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층(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이지만 할 수 없이 사용한다) 인사들이 축산업자도 이제는 신사고를 해야한다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우리 축산업계가 크게 변화될 예고편이 시작된 것이다.

### ○ 축산인의 신사고란 무엇인가?

이제 개방화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물결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개방 반대만을 외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개방화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패배주의에서 정신을 차리고, 수입개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 신사고라고 한다.

GATT의 BOP를 졸업했으니 87년후에는 대부분의 농축산물이 수입개방 될 것이고, 내년(91년) 춘 3월이면 또 한차례 수입개방 예시품목이 발표되더라도 놀라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나갈 길을 찾자는데 다른 의견이 있을수야 없지만, 허약한 축산기반이 마음만 신사고(新思考)한다고 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부가세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제도를 고쳐달라는데도 또 한해가 넘어갔으니, 축산인에 앞서 정책을 다루는 분들부터 신사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 우리나라 축산업은 발전하여 왔는가?

국제경쟁력이란 말이 요즘처럼 자주 쓰이는 것은 아마도 수입개방이 가까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축산업이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축산물 소비량이 몇 배가 늘고, 가축사육두수가 어떻게 배합사료 생산량이 1,000만톤을 넘었으며, 동물약품도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좋다는 것은 거의 구색을 갖추었다. 농림수산부의 축산국도 부내에서는 이제 비중이 큰 국이 되었고, 축

“

자조금제도 도입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한데 단체간의 오해나 바늘땀 두부살을 건강체로 착각하거나, 외풍이 못 들어 오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현재 의료진으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에겐 정말 신사고가 필요하다.

”

협과 같은 축산인의 은행을 갖게 된 것 등을 예로 들어 크게 성장하였음을 말한다.

발전이 무엇이고 성장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발전이고 성장인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수입개방을 두려워 하는가?

필자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약간 성장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만 살이 찌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얼마전 한 유업체에서 크게 광고를 하였는데, 일반 시중우유를 먹으면 바늘땀 두부살이 되는데, 자기 회사 우유를 먹으면 왕땀에 힘살이 붙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축산업이 바늘땀에 두부살만 잔뜩져서 보기에는 그럴 듯 해도 허약하기 그지 없었다. 그래도 그동안은 잔병만 알았는데(양돈은 79년, 84년, 89년 세차례 중병을 앓았지만) 이제는 외국에서 새로운 병이 들어와 중병을 앓을 수 밖에 없고, 사망자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땀(골격)야 눈에 보이지 않으니 바늘땀인지 통땀인지 알 수 없고, 두부살이라도 보기에는 멀쩡하니 이정도 건강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관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 배가 나오면 사장타입이라고 부러워 하던 것이, 이제는 살을 썰려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가? 건강에 대한 신사고가 필요하다.

대부분 축종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료·약품을 비롯해서 생산소재부문이나, 상품화과정이나(가공

처리 등), 유통구조 어느 하나 건강한 곳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약을 먹여놓아야지 아프다고 소리치르면 진통제로 넘어가기에는 사태가 심각하게 되었다.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들이 우리 축산업계가 너무도 허약하니 이러한 건강 상태로 버티기도 힘든데, 외풍이 불어오면 큰 일이니 누가 고쳐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自)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자조금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최근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을 우리업계의 어느 부분이 허약하고 병이 들었는가, 처방은 무엇인가 등을 조사연구하고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사업과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소비촉진사업(국내외)을 잘 자라도록 퇴비를 주는 것과 같다. 신제품개발로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방법 등을 연구하는 정책개발사업 등을 하자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필요한데 단체간의 오해나 바늘땀 두부살을 건강체로 착각하거나 외풍(外風)이 못 들어 오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현재 의료진으로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사고가 필요하다.

이제 부분적인 처방으로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버틸 수 없고, 바늘땀 두부살을 왕땀 근육살로 체질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美豚**